

# 기후변화 아시아 회의, 불교계가 나선다

### 종교·시민사회 연대... 4월 24일~5월 1일까지

지난 3월 23일은 UN 산하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세계 기후의 날이었다. WMO는 '기후변화 대응, 기후과학과 함께'라는 주제를 올해 화제로 선정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지구에 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를 두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컨퍼런스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월정사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내 불교계와 시민사회, 이웃종교계가 힘을 모아 4월 24일부터 일주일간 개최한다. 회의에는 중국, 일본, 네팔, 유럽, 아프리카 등 아시아 25개국과 서구 10개국에서 시민사회 지도자 2백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은 다가올 12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체제에 관해 논의하게 되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대응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Asia Civil-society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Ecology, ACCE)는 3월 2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들은 4월 24일 월정사에서 '기후변화 A-Z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 영주, 경주 등을 돌며 지역민들의 자연환경보전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스터디 투어에 나선다. 이어 4월 29~30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

념관과 명동성당에서 메인 컨퍼런스를 통해 기후변화 피해·공정 사례 공유, 관련 이슈를 논의하며 5월 1일에는 종교인,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기후회복을 위한 연대 단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단식은 2013년 필리핀 하이엔 재난 당시, 필리핀 기후변화 담당관 예브 사노(Yeb Sano)가 UN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온실가스감축을 호소하며 감행한 단식에서 비롯됐다.

ACCE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기후체제가 아닌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온실가

### 세계 35개국 2백여명 참석

### 조계종·로터스월드 등 주관

### 온실가스 감축계획안 설립 목표

스 감축계획안 설립이다.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 위협에 내몰린 이들 중 다수는 개도국 주민들. 이상기후로 인한 쓰나미, 태풍이 매년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열대 지방인 라오스에서는 얼어 죽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정도다. 유럽, 미국, 중국 등 탄소배출국들의 책무가 개도국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컨퍼런스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아시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려주



기후변화대응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ACCE)는 3월 2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4월 24~5월 1일까지 개최되는 컨퍼런스 일정을 공개했다.

자서 취지에서 개최된다. 여기에 종교계가 참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지난해 조지워가 발족할 당시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인식 변화에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로터스월드, 불교생태환경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자재공덕회(대만), 참여불교네트워크(일본, JNEB) 등이 참석한다. JNEB 오코치 스님은 4월 30일 태양 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숲을 주제로 생태사원에 대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텃밭 워크숍을 통해 종교계는 종교 모델과 지역사회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기출 ACCE 조직위원장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기후문제에 관해 각각

의견을 개진해왔다면 이번 컨퍼런스는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컨퍼런스에는 기후변화 전문가들도 대거 동참한다. 몽골정부에서 환경장관을 역임한 아디아수렌초키오(Adiyasuren Tsokio) 박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종교 담당자 나이젤 크로홀(Nigel Crawhall), 예브 사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들려줄 예정이다.

ACCE에는 불교계를 비롯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청교조보전연대, 사회적기업 노나메기, 시민환경연구소, 푸른아시아, 피스빌리지네트워크, 한국브라마리쿠마리협회,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단체가 함께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이주민 관광통역 안내사 수강 모집

한국다문화센터, 4월~11월까지 교육 진행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관광산업 발전 및 이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주민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수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24주간(주 6시간 수업) 진행되며, 해당언어권의 이민자 및 유학생(취업가능자)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필수 시험과목인 관광국어, 관광자원,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이며, 1차 필기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대비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 접수는 4월 13일까지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이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직종. 지난해는 60명이 수강해 2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의가 많아



통역안내사 과정에 참가했던 이주민들.

수강인원이 120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다문화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사랑의 열매가 지원한다. (02)737-0467~8

배현진 기자

## 이천시장애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초등학생 포스터 그리기... 4월 10일까지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최광희)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2회 이천시 어린이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작품 접수는 4월 10일까지다.



공모전 시상식은 4월 18일 이천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개최식에서 진행되며 이후 이천시내 기관을 순회하며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이천시 거주 초등학생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http://ich.sgwon.or.kr>

배현진 기자

## "자원봉사교육 신청하세요"

조계종복지재단, 사찰대상 교육... 봉사조직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에서는 사찰을 대상으로 무료 자원봉사교육 접수를 받는다고 3월 24일 밝혔다. 교육은 사찰 내 자원봉사를 조직·양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사찰이 교육 신청을 하면 재단 직원이 해당 사찰을 방문해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등 자원봉사기본교육을 5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후 사찰은 조계종자원봉사단의 지부(회)로 등록되며 '자비나눔실천도량' 명패도 부착된다. 향후 1년간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지도 및 활동실

적 인증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사찰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운영도 지원된다.

재단은 "20년동안 조계종자원봉사단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불자들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 사찰을 조계종자원봉사단 지부로 등록함으로써 전국 불교자원봉사조직을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본 교육은 전국 사찰 및 신행단체 어디든 신청가능하다. (02)6334-2212

배현진 기자

# 재능은 살리고 정은 나누고...대학생 어르신 봉사 활발

성북노인·송산노인복지관, 건강·휴대폰 등 교육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대학생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재능을 살리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세대간 소통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홍희자)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Happy Together! Happy Solution!(해피투게더 해피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봉사자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봉사자들의 전공을 활용한 건강, 뷰티, 영양 관련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미용예술학과 학생은 손발 마사지, 이마용서비스를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어르신들께 식이요법교육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반려식물키우기, 부채만들기, 말벗서비스를 진행한다. 월 2회 정기적으로 어르신대에 방문하게 된다.

복지관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전공을 활용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홀몸 어르신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세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도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협력해 어르신 휴대폰 활용교육에 나선다.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9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복지관측은 "어르신과 젊은 세대간 정보 격차를 해소해 원활한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기본적인 문자발송부터 시작해 연락처 저장, 스마트폰 기본 기능 교육, 카카오톡?앱 설치 등의 심화교육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교육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어르신은 "학생들이 친절히 자세하게 가르쳐 줘 어려웠던 스마트폰 다루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하며 남은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031)852-2595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8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옥,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5년 4월 中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대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